威德

大法不離身
心存眞善忍
世間大羅漢
神鬼懼十分

一九九六年一月六日

분명함

부처님 세상에 오셔서 행하나
속인은 미혹되어 깨어나지 못하누나
독한 자 부처마저 해치려하거니
선악은 이미 분명하도다

1995년 7월 26일

遊南華寺

佛門淨地難淸靜
魔道邪心亂世行
越是名勝魔越多
人雜叫賣鞭炮鳴

一九九五年八月十五日

먹어도 음미하지 않으니
입의 집착 없도다
하여도 구하지 않으니
늘 도(道) 중에 있도다
고요하되 생각지 않으니
현묘함을 알 수 있도다

1996년 1월 4일

食而不味
口斷執著
做而不求
常居道中
靜而不思
玄妙可見

一九九六年一月四日

남화사(南華寺)를 거닐며

불문 깨끗한 곳도 청정하기 어렵나니
마도사심(魔道邪心) 난세를 횡행하네
명승일수록 마 더욱 많아
잡상인 북적북적 폭죽소리 요란하네

1995년 8월 15일

自修

大法洪揚
幾人能得
世間繁事重重
百忙之閒可自修
它日煙雲一過
方知眞道已得

一九九五年十月六日

도(道) 중에서

마음에 두지 않으니
세상과 다툴 것 없도다
보아도 보지 못한 듯이 하니
미혹되지 않는도다
들어도 듣지 못한 듯이 하니
그 마음 혼란하지 않도다

道中

心不在焉
與世無爭
視而不見
不迷不惑
聽而不聞
難亂其心

스스로 수련

대법이 널리 전해지나
몇몇이나 얻을쏘냐
세상 번거로운 일 쌓이고 쌓였으나
바쁜 틈에도 스스로 수련할 수 있으리로다
훗날 연기구름 걷히고 나면
그때서야 진짜 도 이미 얻었음을 알리로다

1995년 10월 6일

靜觀

靜修閒來看神仙
各顯神通千百年
人心魔變世不同
衆神不度待劫完

一九九五年十月十六日

사람마다 서로 적을 보듯 하고
일마다 뜻대로 되기 어렵구나
세상사람 그 까닭 어찌 알리요
수도자만 미혹을 알 수 있도다

1996년 1월 4일

人人相見如敵
事事都難如意
世人怎知何故
修道者可知迷

一九九六年一月四日

조용히 바라보다

조용히 수련하다 신선을 보노라니
제각각 신통 나타냄이 천백 년이로세
인심이 괴이하게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
뭇 신은 제도하지 않고 겁난 끝나기를 기다리네

1995년 10월 16일

洪

蒼穹無限遠
移念到眼前
乾坤無限大
法輪天地旋

一九九五年十一月九日

괴이하게 변함

천상이 크게 변하여
세상사람 착한 생각 없구나
사람마음 통제 잃어 마성이 드러나니
천재인화라 근심과 원망이네

魔變

天象大變
世人無善念
人心失控魔性顯
天災人禍憂怨

넓음

창궁 무한히 머나
생각 움직이니 눈앞에 다가오고
건곤 무한히 크나
法輪(파륜)은 천지에 돌고 있네

1995년 11월 9일

主掌天地

天之大天上有天
同有日月層層滿蒼宇
地之廣有天有地
共生萬物芸芸遍乾坤

一九九五年十一月十日

보려고 하나 어찌 말처럼 쉬우랴
수행은 사닥다리 오르기와 같도다
미혹을 깨뜨리고 높은 곳에 있으니
장관(壯觀)의 묘함 말로 하기 어렵구나

1996년 1월 3일

想見談何易
修行如蹬梯
破迷在高處
壯觀妙難訴

一九九六年一月三日

주장천지(主掌天地)

천지가 크기로 하늘 위에 하늘 있고
일월이 함께 있어 층층우주에 가득 찼네
땅이 넓기로 하늘 있고 땅 있고
만물 함께 생겨 건곤에 수없이 퍼져 있네

1995년 11월 10일

人覺之分

何爲人 情慾滿身
何爲神 人心無存
何爲佛 善德巨在
何爲道 淸靜眞人

一九九五年十一月十日

미혹

온갖 중생 우주에 가득하고
층층이 하늘 있고 땅 있네
기이한 광경 묘하기 그지없으나
세상사람 미혹되어 깨어나지 못하네

迷

芸芸衆生滿蒼宇
層層有天皆有地
奇景妙無窮
世人迷不醒

사람과 각자의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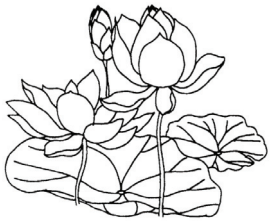
무엇이 사람인고　온몸에 정욕이로다
무엇이 신인고　사람마음이 없도다
무엇이 부처인고　선과 덕이 거대하도다
무엇이 도인고　청정한 진인이로다

1995년 11월 10일

人妖之間

狐黃白柳亂世間
烏煙瘴氣跳大仙
無師無修稱大師
癲癲狂狂二十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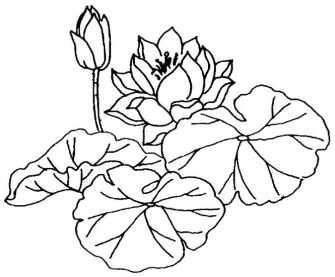
一九九五年十一月十一日



겁 후(劫後)

극미에서 극대까지 부패된 물체를 평정하고
홍대하고 미시한 시방에서 창궁을 보노라
하늘은 맑디맑고 건곤은 바르나니
조겁(兆劫)이 이미 지나 우주가 밝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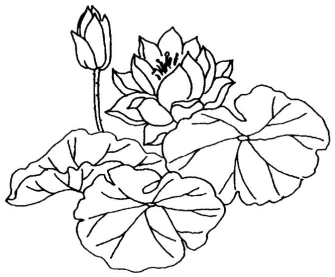
1996년 1월 2일



劫後

絶微絶洪敗物平
洪微十方看蒼穹
天淸體透乾坤正
兆劫已過宙宇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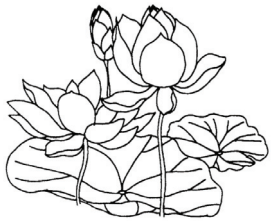
一九九六年一月二日



사람과 요괴 사이

여우 족제비 뱀 귀신 세간을 어지럽히고
난잡하게 굿을 하네
스승 없이 수련 없이 대사라 칭하며
이십년이나 미쳐 날뛰었네

1995년 11월 11일



高處不勝寒

操盡人間事
勞心天上苦
有言訴於誰
更寒在高處

一九九五年十一月十一日

품팔이와 부처수련

불교 계(戒) 전한 지 이천오백 년
명리 먼저 제거하고 또 고생스레 수련하네
오늘날 화상은 노임을 받고
출근하면 작업복도 있다네

1995년 12월 25일

打工與修佛

佛教傳戒二千五
名利先去再修苦
今日和尚發工資
上班還有工作服

一九九五年十二月二十五日

높은 곳은 쓸쓸해

인간의 일에 속 태울 대로 태우고
하늘의 고생에 마음 쓸 대로 쓰네
할 말 있으되 뉘에게 하소연하랴
높은 곳은 더욱 쓸쓸하기만 하네

1995년 11월 11일

大覺

歷盡萬般苦
兩脚踏千魔
立掌乾坤震
橫空立巨佛

一九九五年十一月十二日

대각(大覺)

온갖 고생 다 겪고
두 발로 많은 마귀를 밟고 섰노라
입장(立掌)하니 건곤이 진동하고
거대한 부처 하늘에 우뚝 섰노라

1995년 11월 12일